

 Give2Asia

 King Baudouin  
Foundation

 ASIA  
PHILANTHROPY  
CIRCLE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 아시아의 국경을 넘는 기부

기부자 관심과 기부 환경에 관한 평가

번역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 본 연구에 대하여

필란트로피는 기부자, 자선 단체, 그리고 이들이 활동하는 자선 비영리단체와 기관에 관한 것이다. 신뢰는 이러한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파트너로서, 본 연구의 저자들은 아시아의 다양한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부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형성되는 파트너십에서 얻은 성과와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민간 기부활동과 자선 기부는 아시아 전역에서 빈부 격차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통적인 방법중의 하나이지만,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민간 기부활동과 자선기부 방법과 인프라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시아의 더 많은 개인 기부자들이 각국에서 직면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들 중 일부를 해결하고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각국의 나라와 영토를 넘어서서 바라보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매우 구체적인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아이디어는 아시아 지역 내 필란트로피가 부의 증가에 따라 더욱 발전할 것인지, 혹은 어떻게 발전할 지에 대한 커져가는 토론의 장 속 핵심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 앞서, 저자들은 여러 국가에 대한 사전 연구, 비공식대화 및 축적된 보조금 조성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기부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자선활동 이해관계자 집단과 각각의 상황에 대한 미묘한 관점을 탐구함으로써 가정을 통해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 연구는 기부활동에 관한 현존하는 지식을 아시아 지역 내에 있는 잠재적 지역에 제공할 것이다.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시아 지역 내 해외기부를 지원하는 인프라에 대한 의욕이나 요구가 있는가?



그렇다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어느 장소, 기관, 서비스가 관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15개국의 해외기부활동 현황에 대해 고찰한다.

# 개요 발췌문<sup>1</sup>

## 증가하는 부, 증가하는 요구

아시아는 세계의 다른 어떤 대륙보다 억만장자가 많다. Wealth Report 2021의 추정에 의하면 전세계 억만장자의 36%가 아시아에 살며, 2022-2026 기간 중 순자산 기준 초고액 자산가의 수는 이 지역(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은 지난 20년 동안 엄청난 경제 성장을 보인 반면, 빈부격차 또한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많은 자선 비영리 단체와 기관은 해당 각국과 지역사회에서 빈곤 완화, 교육, 의료, 재난 대응,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아시아 지역의 부가 꾸준히 증가하고 기업이 정신과 글로벌 연결성과 역시 증가함에 따라, 아시아의 많은 부유한 커뮤니티가 지역적 세계적인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 자국의 국경을 넘나드는 모습을 보게 된다.

## 아시아의 해외기부 트렌드

현재 아시아에서 국가 간 기부 규모가 가장 높은 수준인 나라는 호주, 일본 그리고 한국이다. 세계에서 자선 활동이 규모 면에서 가장 활발한 상위 10개국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들 기부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해외 기부의 성장이 더디거나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섹터에서의 공통된 인식이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싱가포르, 중국-대만, 태국 및 베트남의 해외 기부에 대한 국경 간 기부에 대한 통합 데이터는 없지만,

아시아 국가는 국내 기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이 섹터 전문가는 말한다. 아시아에서는 기부 사실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문화가 있고 전 지역의 해외 기부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기부의 전체 규모를 측정하기 어렵다.

15개 시장에 걸친 현지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몇 가지 주요 트렌드가 나타났다. 이 트렌드는 기부자 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결과는 해외 기부를 성장시키기 위한 실용적인 솔루션의 정보를 위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아시아에서 자선은 압도적으로 관계에 좌우된다. 국경을 넘어 기부하는 아시아 필란트로피스트들은 그들의 출신 국가나 같은 민족적 뿌리를 공유하는 공동체에 기부함으로써 고향을 가까이서 돌보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 우선순위에 맞춰 기부하는 것 또한 모든 유형의 기부자들에게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의 몇몇 다른 지역과 달리, 사업 타당성과 세금 혜택은 많은 기부자의 의사 결정에 큰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는 섹터의 전문화 하는데 도전과제이기도 하지만 관계의 힘이 해외 기부 촉진에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 기부가 아시아에서만 증가하고 있지는 않으며 모든 국가가 해외 기부를 조달하는 공급자는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젊은 아시아 자선 사업가와 지역 거점을 가진 기업들 사이에서 기부 증가의 잠재력이 있지만, 이 기회를 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국경을 넘는 기부를 위한 아시아의 규제 환경

아시아의 법과 규제는 진화하고 있다. 기부자, 자선 단체 및 중간지원단체는 해외 기부에 있어 엄격한 규제 환경에 처해있지만 다양한 수준의 정책지원을 받기도 한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자선기금이 해외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에 특정 제약을 둔다.

이러한 기금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정부 승인 요건부터 해외 기부 거래에 관한 은행 규제, 기금 활동에 대한 추가보고 요건등 종류도 다양하다. 또한, 자선 목적의 외환 거래가 어느 경우에 허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혹은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준법 체크리스트가 없어 기부자들의 우려가 상당히 가중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해외 기부 시도조차 꺼리게 된다. 본 연구 대상 국가 중 과반이 자선 기부에 대해 비교적 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혜택을 챙기는 데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세제혜택이 기부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작다.

전반적으로 호주, 중국 - 홍콩특별행정구, 일본, 뉴질랜드 및 한국은 이 지역에서 국경을 초월한 기부가 가능하도록 가장 우호적인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나머지 기부 시장은 해외 기부에 관해 우호적인 정책이 없기는 하나, 기부 시장이 해외 기부를 받아들이는 종착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 간 자금 흐름에 관한 규제 장벽이 전반적으로 견고해지고 강화되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경을 초월한 기부에 대한 정책이 시장마다 크게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유리한 정책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도, (정책의) 복잡성은 그 과정을 더 잘 촉진하는 중개자의 역할이 있음을 시사한다.

## 국경을 넘는 기부를 위한 아시아 인프라

아시아에서의 국경을 넘는 기부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는 북미나 유럽에 비해 덜 유용하다. 효과성, 투명성, 책무성을 보장하고, 해외 기부를 장려하는 정책을 옹호하고, 해외에 기부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국경을 넘는 필란트로피 활동에 종사하는 생태계 조력자는 이 분야의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전반의 이러한 필수 지원 인프라를 보면, 수요가 높은 호주, 중국 - 홍콩특별행정구, 일본, 뉴질랜드 및 한국과 같은 나라에 보다 성숙한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과 같은 신흥 기부 시장에서 긍정적인 발전을 발견했다. 반면 다른 시장의 지원 인프라는 국경을 넘는 기금의 수혜자를 위한 서비스에 크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은 국경을 넘는 필란트로피에 초점을 맞춘 지식과 사고 리더십 (thought leadership)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지역 주제에 관심 있는 잠재 기부자의 폭이 넓어진다는 신호이며, 아시아 필란트로피 섹터에 관한 정보와 데이터가 매우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해외기부에 관한 규제의 복잡성, 언어 차이, 기부자와의 관계 구축에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국가에 있는 민간 자금 제공자와의 신뢰 구축을 돕고 각기 다른 이해관계와 문화를 대변하는데 중개 서비스는 핵심이 될 것이다.

## 아시아의 국경 간 필란트로피

본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지역의 규제 관련 문제가 급증하고 해외 기부는 보통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 해외 기부에 대한 억눌린 수요와 해외 기부를 장려하는 방법이 있다

### 시장 성숙도

기존의 해외 기부, 규제 환경 및 필란트로피 활동 지원 환경의 각 위치에 대한 위의 평가를 감안하면 아시아 경제는 해외 기부를 더 장려하는 새로운 해결책을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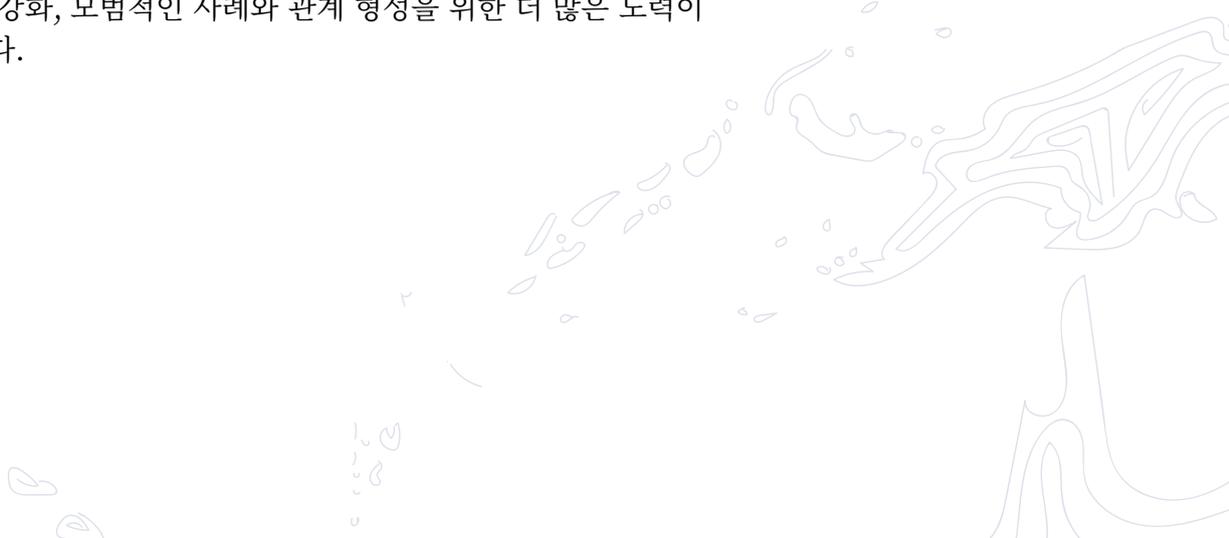
‘높음’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시장은 아시아에서 해외 기부를 가장 많이 하며, 이를 장려하는 규제 환경의 지원 덕에 제약은 가장 적다. 해외 거주 집단, 젊은 세대, 지역적 발자취가 있는 기업은 해외 기부를 할 가능성이 높은 기부 그룹에 속한다. 국가 간 기부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메커니즘은 존재하지만, 해외의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할지, 누구를 신뢰하고 지원할지, 그리고 기부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지에 관한 기부자의 이해를 돕는 지식 전달이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시장은 해외 기부를 촉진하고 국내 및 국제적 필요에 따라 기부자를 연결하기 위한 적합한 지원 메커니즘으로 해외 기부를 확대할 준비가 되어있다.

호주,  
중국 - 홍콩특별행정구,  
일본,  
한국

보통

‘보통’ 국가들의 시장은 해외 기부를 상당히 제약하는 규제 환경 등 명확하게 두드러지는 어려움을 직면하고있다. 이 국가들에서는 부의 집중도가 매우 높고 해외 기부금을 증액할 준비 수준은 보통이지만, 해외 기부의 장벽 완화를 요구하는 옹호 활동과 지원 생태계 강화, 모범적인 사례와 관계 형성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낮음

‘낮음’에 속하는 국가들의 시장은 자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기 때문에 국내 필란트로피에 더 관심을 기울이므로 해외 기부에 대한 잠재력이 낮아 유리하지 않다. 해외 기부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 규제 환경, 그리고 해외 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사고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국가들은 해외 기부에 준비가 되어있지 않지만, 주변 국가나 지역에서 온 해외 거주 집단 커뮤니티 사이에서 부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민간 해외 자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중국 - 대만,  
태국,  
베트남

## 해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용적인 해결방안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와 몇몇의 다른 기관들은 아시아에서의 국경을 초월한 필란트로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 아시아를 위한 상호 유익한 인프라 구축을 돕는 일에 함께할 분이면 누구든 환영한다.

각 국가들의 시장 성숙도가 ‘높음’과 ‘보통’에 속하는 곳에서는 해외 기부를 확장할 단계에 들어서있다. 각국 내에서 활동 중인 자선활동가들은 아시아의 해외 기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이 활동가들은 섹터의 다채로운 강점과 능력을 활용하여 보다 깊은 대화를 장려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아시아지역 차원에서 해외 기부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국이 법규 위반의 위험을 해소하고 기부자와 자선단체를 위해 기부 활동 과정에 투명성을 도입하는 데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파트너의 지원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이러한 추가적인 지원은 지식과 문화 간극을 메워주고 기부자와 검증된 해외 이니셔티브 간의 신뢰를 구축할 것이다.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형성의 성공은 보다 넓은 생태계의 집중적인 노력과 필수적인 지역 인프라 및 지원을 생태계가 제공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여기에는 기부자를 지역 문제와 해결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 국경을 초월하는 필란트로피를 가능케 하는 전반적인 환경 개선, 상호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 간 기부 기회 창출, 그리고 지역 내 해외 및 임팩트 주도 기부의 문화 형성이 포함된다.

각국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도전과 “위기 이후 회복력, 회복력,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회복과 번영을 돕는 수단으로서 필란트로피가 논의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 대한민국 (한국)

성숙도

비교

한국은 국제적인 사고방식, 종교를 기반한 주요 동기, 국제 개발 기관의 강력한 존재에 의해 강화되어 꾸준한 해외 기부 문화를 갖고있다. 자선 부문은 최근 스캔들로 인해 일부 신뢰 문제를 겪었고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해야 했다. 그러나 시민 참여가 증가하고있고 젊은 세대와 기업의 국제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해외 기부 지수

점수  
3.50

한국의 해외 기부 수준은 비교적 높는데, 이는 2010년 이후로 계속 안정적이다. 2018년 기부금액은 약 8억 5,200만 달러로, 한국 GNI 대비 0.05%, 그리고 전체 기부금의 약 10%를 차지한다.<sup>2</sup>

2017년 한국의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에 따르면 해외 기부금의 51.7%가 개인 기부자로부터 나왔다. 나이가 많은 고액자산가들은 가족 내에서만 부를 유지하거나 국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젊은 한국인들의 국제 개발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있다.<sup>3</sup> 많은 기업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해외 기부를 하기도 한다.

한국에 등록된 INGO는 한국 기부자들이 해외 사업을 지원하는 주요 채널이다. 크라우드펀딩은 또한 해외 기부를 위한 인기 있는 플랫폼으로 부상했다. 가장 많이 기부하는 대상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특히 베트남과 필리핀이다. 이와 동시에, 아프리카 기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팩트 투자와 같은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을 통한 기부는 특히 기업 기부자와 고액 자산가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다.<sup>5</sup> 한국 기부의 미래는 사회적 임팩트 경제와 전통적인 필란트로피의 혼합 모델을 통해 더욱 커질 수 있다.



## 규제 지수

점수  
3.50

한국의 규제 환경은 해외 기부에 비교적 우호적인 편이다. 테러를 지원하거나 북한 및 관련 국제기구를 지원하는 활동을 제외하고는 해외로 기부금을 보내는 것에 제한이 없다. 개인기부자나 법인이 해외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기관이 국내 단체든 국제 단체든 사전에 기획재정부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sup>3</sup>. 등록 절차는 긴 시간이 소요되며, 이는 기부자가 기존 INGO에 기부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sup>7</sup> 등록된 자선 단체라고 할지라도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해외 단체에 기부한다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통은 적법한 문서가 은행에 제출되기만 하면 세금 혜택 없이 지원 대상 기관에 직접 자금을 이체할 때 큰 문제가 없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간단하고 신속하여 당일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인프라 지수

점수  
3.25

한국은 비교적 다양한 필란트로피 생태계를 갖고있다. 규제 완화를 위한 기존 옹호 노력에는 정책을 명확히 하고 법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도 다수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국내 문제에 더 중점을 두고있다.

조직들의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 가운데, 해외 기부 트렌드에 대한 지식 격차가 여전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종교 단체는 해외에 기부해 온 역사와 문화가 있지만, 기부 범위와 신천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과거 일부 NGO의 부정행위 및 기부금 오용 보도로 인해 손상된 자선 부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12 입법 및 제도 개혁을 통해 사회 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 외에도,13 중소기업-NGO 소규모 NGO에 관한 관련 규정에 대한 책임 체크리스트 및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신뢰를 촉진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더 많은 국경을 넘는 자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한국 문화에 맞춘 신뢰할 수 있는 중개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생태계 지원 역할	기관	
교육 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필란트로피 조언 기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슬로워크	
모금 중간지원조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 굿네이버스 글로벌임팩트	
생태계 촉진/어드보커시 기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서울시 NPO지원센터 한국가이드스타	카카오임팩트 다음세대재단 아쇼카 한국
인프라 지원 기관	아산나눔재단 브라이언임팩트	
필란트로피 언론 기관	이로운넷 더 나은미래 복지타임즈	

# 미주

1. 본 보고서에서 Market은 ‘시장’과 ‘국가’로 번역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미에 더 부합하여 시장과 국가 두가지로 문맥에 따라 번역하고자 한다.
2. 2020.12월부터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의 구분이 없어지고 공익법인으로 통일되었다.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2023년부터 (구)법정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구)지정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이 다시 구분된다.
3. 2020.12월부터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의 구분이 없어지고 공익법인으로 통일되었다.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2023년부터 (구)법정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구)지정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이 다시 구분된다.





**Give2Asia USA Headquarters**

2201 Broadway, 4th Floor  
Oakland, CA 94612  
USA

**Phone:** +1.415.967.6300  
**Fax:** +1.415.967.6290  
**Email:** [info@give2asia.org](mailto:info@give2asia.org)

**Give2Asia Australia**

Suite 40, 36-38 Gipps Street  
Collingwood VIC 3066  
AUSTRALIA

**Phone:** +61 3 7036 7843  
**Email:** [australia@give2asia.org](mailto:australia@give2asia.org)

**Give2Asia Foundation Limited  
(Hong Kong SAR PRC)**

Room 2609, 38 Wong Chuk  
Hang Road, Wong Chuk Hang,  
Hong Kong SAR

**Phone:** +852 3963 9639  
**Email:** [hk@give2asia.org](mailto:hk@give2asia.org)